

명랑소녀, 명랑아빠가 파리로 간 사연



《온쪽이 하에린의 내가 만난 파리》 최하에린 지음 | 최정현 만화 | 디자인하우스 | 180쪽 | 값 9,500원



부모님 세대와 아이들 세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 다정하게 손을 잡고 여행길에 오른 부녀가 있다. 명랑 만화 주인공 같은 시춘기 소녀 최하에린 양(13)과 시사만화가 최정현 씨(43)가 그들이다. 만화 속 주인공들처럼 맑은 미소가 인상적인 이들이 다녀온 곳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 지난 2001년 6월에 파리를 방문한 이들은 《온쪽이 하에린의 내가 만난 파리》를 통해 아가자 기한 여행 이야기와 파리 일대의 문화, 예술적 문화보고를 소개했다.

“독일을 혼자 여행했었는데 도저히 심심해서 혼자 못 가겠더라구요. 그래서 예린이에게 동행을 제안했죠.”

최정현 씨가 한창 수학문제 풀기에 바쁜 딸(당시 예린이의 나이는 11세)을 부추긴 또 다른 이유는 서양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미술을 전공하면서 실제교육이 부족한 우리 교육현실을 아쉽게 지켜본 그는 자녀에게만은 체험학습을 권

장하고 싶었다.

“기차역으로 만든 오르세 미술관은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그림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특히, 거기서 본 백곰이 살아 있는 곰 같아서 인상 깊었죠.”

여행 추억을 떠올리며 마냥 즐거워하는 명랑소녀 최하에린 양은 50도가 넘는 폭염도, 7, 8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다리폭도 거뜬히 감당했다고 자랑스러워한다. 지도에 없는 길을 찾아가면서 제자리 걷기를 했던 경험이 수없이 많았지만 이 기억들 모두 소중한 추억. 아버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세계를 보는 시야도 넓혀주면서 책에서만 보던 유명 그림과 조각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여행의 가장 큰 소득이었다. 특히, 제1회 평등부부상을 수상했고 시사만화가로 활동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시사만화가를 꿈꾸는 예린 양에게 박물관 기행은 꿈을 향한 중요한 발판이

되기도 했다. “아빠는 심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라고 하세요. 솔직히 외국에 다녀오면서 우리 학교의 교육이 친구들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미술 쪽도 그런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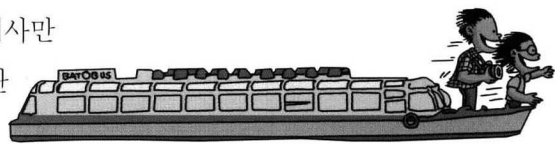
아버지가 느낀 우리 미술교육의 문제점도 이와 비슷하다. 기술적인 그림에만 크게 주목하고 그것을 등급으로 매기는 것이 그것이다. “기능은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미대를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인문학을 배우길 바라고 있죠. 사실 잘 그리는 것보다

무엇을 그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아버지의 바람대로 귀여운 딸은 한 달 간의 여행 속에서 단순한 기술을 가르치는 우리 교육과 외국의 실제 학습을 스스로 비교하며 자유롭게 사고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생활 속의 문제점들을 만화로 보여주고 싶다는 야무진 꿈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 도시에 한 달 간 있으면 웬만한 골목은 다 알게 되죠. 외국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기도 해요. 아이들은 서양의 제도와 시설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고 개선할 부분을 찾기도 합니다.”

여행 전에는 펼쳐보지도 않았던 서양사, 미술사 책이 친근하게 다가온다는 최하에린 양은 앞으로 아버지와 의 또 다른 여행 계획에 들떠 있다. 다음 여행지는 분위기가 있는 도시, 런던.



“교통비 정도만 가져가고 먹거리는 여기서 준비를 해가니까 생활하는 비용은 별 차이 없죠. 그러니까 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으면 해요. 앉아서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 세계를 경험해야죠.”

여행 전에 무엇부터 챙겼는지,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조목조목 자세한 사항까지 친절히 소개한 오지랖 넓은 명랑부녀의 기행기는 여행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 알찬 여행의 참맛을 공유하게 해준다. **주요 키워드**

김청연기자